



전북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맞손'

도-방사청-전주시 삼자협약
2030년까지 490억원 투입
첨단복합소재·부품 산업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키로

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 방위사업청, 전주시와 함께 '전북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방산 소재부품 공급 거점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방위사업청, 전주시와 협약을 갖고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날 11일 방산 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전북이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을 구분하고, 세부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45억원, 지방비 245억 원 등 총 490억원을 투입해 전북에 첨단복합소재·부품 산업의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향후 △클러스터사업 사업단 및 지역협의회 구성 △국방첨단전략산업(첨단소재 분야) 특화 로드맵 수립 △방산특화개발연구소 구축 및 운영 △방산특화 연구·시험·실증 등 인프라 지원 등에 도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은 전주시 탄소산단을 중심으로 완주군 국가산단, 새만금 부안군 초읍지 등에서 추진되며, 소재·부품·완제품의 기획부터 설계, 연구·시험, 조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인증과 조달 진입을 지원할 시험·설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복합소재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시제품 제작 등 기업 지원도 병행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전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업무협약식에 이원택 도지사(사진 오른쪽)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조시훈 전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할 계획이다.

도는 신규 사업 발굴과 체계기업 유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 완성품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전북 안에서 완결하는 밸류체인을 완성해, 국내 공급망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K-방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정체기를 겪었던 지역 탄소 산업이 방위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중소기업들이 체계종합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월에는 사업단을 꾸려 본격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갖추고, 9월부터는 연

구개발과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세부 사업별 수행기관과 지원 대상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지역 강점과 연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가 사업화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과 정책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전북은 국방 소재·부품 국산화를 이끌 최적의 기술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며 "채롭게 출범한 전북도청·전주시청과 적극 호흡해 전북 방산혁신클러스터가 K-방산의 든든한 기술 공급망 거점이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전주의 첨단소재 인프라가 방위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와 결합해 강한 시너지를 내게 됐다"면서 "탄소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방산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클러스터 구축은 전북의 첨단소재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방 신산업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15일 새만금 신항을 크루즈 기항·준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새만금 국내 9대 크루즈 기항지 선정과 세계적인 항만·선박 기업인 월렛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청, 크루즈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본격 착수

올해 말 새만금 신항 개항에 맞춰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연구 내용은 △국내외 크루즈 기항·준모항 동향 및 여건 분석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건

립·운영 실행계획 수립 △단계별 크루즈 인프라 확충 방안 △기항·준모항 육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 로드맵 수립 등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방향과 세

부 수행 계획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 개항에 맞춰 크루즈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 크루즈터미널 시설과 CQ(세관·출입국·검역) 체계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 내달 12일 개막

올해로 25회를 맞는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가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를 주제로, 판소리와 산조, 시나위, 굿, 농악 등 한국 전통예술의 원형과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하나의 '판'을 만들어가는 축제를 지향한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판소리 다섯바탕'에서는 전북을 대표하는

명창들이 판소리의 주요 대목을 선보이며,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에서는 차세대 소리꾼들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무대를 펼친다. 또한 '산조의 밤', '오늘의 시나위'를 통해 한국 전통음악의 깊이와 새로운 가능성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굿', 김소라의 '여성농악 안성, 평안굿', 고창농악보존회의 '만두레 풍장굿' 등 굿과 농악 공연도 마련돼 공동체의 화합과 전통문화의 생명력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제13대 도의회 첫 회기

오늘부터 30일까지 15일간 임시회 열고 의정 돌입

업무보고 청취·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희수)는 16일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원구성 이후 첫 회기인 제43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1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회기 첫날인 16일 제차 본회의에서 민선9기 출범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17일부터 2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진다. 17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국원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13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첫번째 회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원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4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 한정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하여, 도민의 시각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시급성을 따져보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김희수 의장은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슬로건인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이라는 취지에 맞게, 의회의 문턱을 낮춰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통해 민생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며 "도료 의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진심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지만,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17일 제헌절 공휴일에 따라 19일자까지 신문 쉽니다.

